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中企 91% “시스템·멘토링 등 만족”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후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았고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10곳 중 9곳 이상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동시에 정부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삼성과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1.1%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만족도는 2018년 86.2%에서 86.4%(2019년)→88.7%(2020년)→91.1%(2021년)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중앙회 관련 사업 참여사 조사
만족 4년 연속 ↑... 불만족 0.5% 불과
고용 증가기업 18.3% 평균 3.5명 늘어
생산성 높고 수주 확대... 매출 증가로
中企 “스마트공장 정부 지원 확대를”

/유토이미지

스마트공장은 고용 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후 종업원 수 변화에 대해서 76.7%가 ‘영향없다’고 밝힌 가운데 ‘증가했다’는 기업은 18.3%로 ‘감소했다’는 기업(5%)보다 많았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 평균 29.8명에서 33.3명으로 3.5명 증가했다.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

(30.6%)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2.5%)을 꼽았다. 반면 스마트공장 만족 여부에 대해 ‘보통’은 8.4%, ‘불만족’은 0.5%에 그쳤다.

삼성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200명의 전담 멘토를 두고 ‘현장 혁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당 3명이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6~8주간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현장 혁신활동과 컨설

팅에 대해 86.6%가 ‘만족’ (매우 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만족도 역시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은 12.4%, ‘불만족’은 1%였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한 각종 솔루션(MES 등), 기업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에 대한 만족도(83.7%)와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69.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41.4%)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24.9%)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16%) 등이 주요 이유였다.

구축후 매출변화에 대해서 응답기업의 79.2%가 ‘영향없다’고 밝힌 가운데 18.8%는 ‘증가’, 2%는 ‘감소’했다고 각각 답했다. ‘증가’ 기업은 평균 87억 2000만원에서 124억3000만원으로, ‘감소’기업은 평균 15억5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각각 변화가 있었다.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산성증가, 수주확대, 품질향상, 주문물량증가 등의 순이었다. 매출 감소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음, 원가가격상승, 판로부진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93.5%는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95.5%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제조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60.6%) ▲안전한 일터 구축(32.6%) 등이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이유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와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ESG 경영, 안전한 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최대 축제 ‘소상공인 대회’ 성료

일산 킨텍스에서 이틀동안 진행
모범 소상공인·공로자 등 포상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하는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다.

2006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최하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라는 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 정부포상으로는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145점이 돌아갔다.



지난 2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왼쪽부터)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이영 중기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선 1인 소상공인으로 22년간 경기 의정부에서 신발가게(수덕신발)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백 대표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백년가게 인증업체로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는 (사)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성철현 회장이 소상공인의 이익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행사 첫날 축사에서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

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나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며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혁신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성장하는 기업가로의 도약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조력자’ 벤처協, 창립 27주년

3만5000개사 소통 창구역할 특목
강삼권 협회장 “지속적 연결 통해
세상 바꾸는 주역 되도록 노력할 것”

창립 27주년을 맞은 벤처기업협회가 3만5000여 벤처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와 소통 창구 역할을 특목하고 있다.

4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했다.

협회는 95년 12월 당시 고(故) 이민화 메디슨 대표,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장홍순 테보테크 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 등 13명의 벤처기업 CEO들이 한국의 경제구조를 신산업 중심인 벤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출발한 것이 시초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창립을 통해 한국에서 ‘벤처기업’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엔 ▲코스닥시장 개설 주도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정 제안 ▲기술거래소 출범 주도 등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재창업 안정망 강화 등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대제도로 전면 개편되면서 혁신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설립 당시 13개 회원사에서 지금은 1만7000여 회원사와 3만5000여 벤처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벤처업계를 대변하고 기업과 소통하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창구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벤처·스타트업 현장에서 시급한 주요 현안들을 귀담아듣고 해결하는데 더욱 주력해 왔다. 올 초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엔 업계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해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정책 세부과제 66개가 반영되기도 했다.

최근엔 침체된 사회에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범사회적 기업가정신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는 등 더욱 건강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회원과 함께한 27년의 시간은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주체로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 앤데미 시대에 협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앞으로도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벤처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에몬스가구, 최대 40% 할인 등 감사행사

내년 1월1일까지 전국 매장서 진행

에몬스가구가 1월1일까지 연말 감사 행사를 전국 에몬스 매장에서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 전국 에몬스 매장에서 신혼 매트리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침대 프레임 40% 할인과 30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에코 컴포트 베개’를 추가 증정한다.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부부라면 프로모션 혜택뿐만 아니라 신혼 베스트 상품 20% 할인, 현대·우리·BC·KB국민·삼성·NH농협·하나 등 카드사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녹색산업 대표 기업 육성”... 우수한 경산업체 14곳 지정
▲ 농식품부, 노후 트랙터·콤바인 2만 5600대 3년간 조기 폐차 지원 /사진 뉴시스

▲ ‘아직은 일 하는 청춘’... 오늘부터 노인 일자리사업 신청
▲ 방송연예인 매니저 노예계약 없게... ‘표준계약서’ 만든다



▲ “유해 화학물질 오염음 막자”... 판매사업장 100곳 점검
▲ “재유행 주춤세” 신규확진 4만6564명, 전주대비 446명 ↓ /사진 뉴시스